

情報化사회의 성격과 社會科學의 발전방향

孫 章 權

(高麗大 社會學科)

1. 머리말

오늘날의 사회는 科學과 情報化 시대이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여 왔다.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체계를 과학적으로 축적해 왔다. 과학적 지식은 생존양식의 결과로 획득된 체계화된 지식이다. 지식의 영역은 크게 사물과 인간의 양분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지식이 갖는 바 특성은 사람, 물질 그리고 이들의 통합관계로 설정되는 社會性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사회과학자는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속성 그리고 인간의 물질생활현상에 관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그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은 관심영역에 따라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법학, 경영학 그리고 아마도 언어학까지의 방대한 영역을 포함한다. 이들 학문은 같은 주제로서 인간의 행위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한 분야의 과학이다. 과학이란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획득된 체계화된 지식이며 과학적 관찰에 의해서 증명된 지식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은 지식의 체계를 귀납과

연역, 그리고 실증의 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이론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社會科學의 각기 다른 분야는 연구주제의 성격에 따라 표방하는 학문의 이름은 다를지라도 관심자의 주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는 같다.

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의 특성은 사회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연구의 성격과 연구방법의 기술적 지원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속성의 본질적 특성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회의 時代的 性格이 바뀔 때 연구주제의 선택과 연구방법이 사회적 정보 및 기술수준에 따라 맞추어 진보, 개선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미 정보와 기술이 중심이 되어 있다. 정보는 정보사용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제공해 주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변경시켜 줄으로써 새로운 해석과 적절한 행위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정보의 원료는 자료이다. 자료는 인간의 행위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와 용도를 지닐 때 정보가 된다. 기술은 재화와 지식을 투입하여 생산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른 형태의 재화와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또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자료가 사회적 의미성과 과학적 용

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성격을 가지려면 기술적인 공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情報와 技術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를 정보화시대 또는 정보기술사회라고 볼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는 사회과학의 연구대상과 과학적 방법을 그 시대적 성격에 따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의 성격적 특성은 정보의 의미와 기술의 활용이 달라짐에 따라 사회과학적 지식의 의미성과 과학적 지식의 해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보와 기술중심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과학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情報化사회의 社會的 성격

현대는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정보화사회로 간주된다. 후기산업사회로의 구조전환으로 나타나는 정보화사회는 과학지식, 기술변화, 그리고 정보중심으로 사회의 구조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이다. 사회의 핵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서비스경제의 창조, 전문기술계급의 지배, 기존 지식 및 기술의 중요성, 새로운 정보기술의 창출 등은 정보화사회가 출현되는 상징적 현상이다. 여기서는 정보화시대의 도래를 산업자본주의사회의 정보시대로의 이행으로 이해하고, 산업주의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시대의 출현,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환경, 그리고 정보기술의 역기능과 정보화사회의 비인간화 등의 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情報化시대의 出現

산업사회는 자본중심의 사회로서 공업화, 분업화, 조직화, 도시화 등의 사회적 성격이 특징화되는 사회이다. 산업이후의 사회는 공장중심의 생산이 주가 되는 산업주의가 극복되고 사회생산의 경제활동이 서비스분야에 집중되고, 양보다는 질적인 생활양식이 부각되며, 자본이나 물질중심의 사회구조가 탈피되고 정보나 가치중심의 사회로 그려진다. 산업생산이 더이상 사회적 생산의 중추가 되지 않는다는 산업이후의 사

회는 탈산업사회, 고용자사회, 조직사회, 소비자사회, 대중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 등으로 지칭되어 情報와 技術革命에 의한 새로운 사회성격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선진사회는 정보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발전지향의 국가도 이미 핵심적인 사회구조의 운영은 지식·기술·정보중심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인구구성상 정보지식 및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적 총생산에서 정보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극소전자중심의 정보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말한다. 산업은 정보중심의 지식산업으로 팽창되어 경제적인 생산활동은 지식 및 정보산업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지식산업은 두뇌활용에 지식의 응용과 연구개발, 교육관련 사회제도와 조직형성, 그리고 컴퓨터기와 같은 극소전자 정보기기로 정보문화가 교환, 매개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회의 주요사업구조가 부각된다.

정보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 사회복잡성의 증가, 정보기술에 의한 가정·사무 및 조직의 자동화, 정치질서의 민주화, 그리고 정보처리관련의 조직관리의 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전반적으로 사회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직접통제보다는 간접적인 순환기제에 의한 관리가 보편화되며, 의사결정의 조직원 참여가 확산되는 분권화의 성향이 나타난다. 지식과 기술이 주도하는 情報産業은 오늘날의 사회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으나 끊임없는 기술개혁과 새 지식의 창조로 내부적인 사회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2) 情報化시대의 社會的 環境

환경은 사회나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개인이나 사회적 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체계외적인 요소의 총체이다. 환경에 관한 일반적인 분류는 정보사회의 환경분석에 필요한 틀로 경제, 정치 및 법적 환경, 사회적 노동환경, 자원 및 기술환경, 그리고 문화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보화시대의 경제적 환경은 국민경제의 측면

에서 물질중심의 식량이나 상품생산이라기보다는 지식이나 문화적 요소에 관련된 서비스 위주의 환경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정보화사회는 정보기술의 공동소유라는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이다. 정치적으로 정보화시대의 환경조성은 정치참여의 민주성, 대중민주정치의 효율성, 그리고 정치정보의 교육적 홍보성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파급은 국민의 가치의식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의 생산에 따르는 풍요로운 물질과 서비스를 소모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생활목표가 개별화되고 생활기준이 모호하여 개인의 생활영역이 불안정하다. 정보화사회의 개별화된 사회생활이 주는 인성변화는 인간적인 접촉의 결여와 기계와의 무감각한 대화의 결과로서 단순화된 일방통행의 성격 반응이 나타나고 기계와 인간이 대비되는 상황에서 기계의존적인 수동적 행위가 많아진다. 문화적으로 정보화사회는 지식 및 기술에 의한 정보문화를 형성한다. 정보사회는 사회제도의 변화와 병행하여 다양한 기술문화를 증대시키고 공동체적 문화를 발전시킨다. 정보화사회에서 발견되는 과학지식과 생산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새로운 기술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경쟁에서 과학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는 선진국에의 문화종속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보화사회의 노동환경은 자동화된 고도의 정밀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가변적인 상황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상황에 따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받은 고급 노동자를 요구한다. 정보사회의 기업조직은 서비스중심의 사회로부터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원 및 제정정보와 새로운 기술지식을 기업운영의 자원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정보시대의 생산기술은 새로운 가치나 재화를 창조하기 위해 과학지식을 응용하고 실용화한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감각적 이치자를 갖춘 기계의 개발이 정보화사회의 기술개혁이 목표하는 바이다.

3) 정보기술의 逆機能과 정보사회의 非人間化

정보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정보기술의 합리성을 수용하고 기술과 지식의 기능을 인식하며, 새로운 사회과정에서 적응된 체계로 변화된다. 정보사회의 변화방향은 지식과 기술의 합리적 적용의 결과를 반영하고, 권력의 분권화를 조성하며, 인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켜 사회적 통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형성한다. 반면 정보기술의 부정적 측면은 사회기술의 적응과정에서 파생되는 관료제적 역기능, 인간의 소외현상, 그리고 개인기술의 탈속련화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정보사회의 새로운 기술은 기존 관료체제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기술관료제를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들의 지배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관료제적 구조의 강화는 인간의 무능을 조장하고 조직의 규범에 인간이 종속되는 官僚의 人性을 형성한다.

인간의 기계에의 의존성은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성, 비공식성, 그리고 창조적 인성을 무시하게 한다. 노동자는 조직내에서 자기통제의 권력을 상실하고 정보기능의 철저한 통제로 직무만족보다는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된다. 또한 조직생활에서의 기계적인 인간관계는 인간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며 조직생활의 밀착도를 약화시킨다. 정보화시대의 노동이 정보기기에 의존하는 또다른 결과는 육체노동의 감소와 사무노동의 증대, 그리고 노동기술의 脫속련화현상이다.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노동의 무뇌화작업은 기계기술에 의한 인간노동력의 대체효과가 있다. 미숙련 및 여성노동력의 기계기술 대체현상은 조직운영에의 경영합리화로 이어지며 사회 및 기업조직에 관한 정보사회의 관리혁신으로 인식된다.

정보화사회가 자본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사회발전의 결과라면 산업사회에서 지적되는 계급불평등의 문제와 노동자의 소외현상은 정보와 기술중심의 사회에서도 필연적인 副作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세계시장체제에서 정보기술에 의한 경제질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정보기술의 국제간 협력관계는 후발국의 선진국에서의 지식 및 정보

기술의 예측을 초래하고 그 결과는 다국적 매체 기업의 문화지배를 초래하며, 후진국의 문화속속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끝으로 정보기술의 사회적 파급에 따른 개인 생활에 관한 統制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통신기기의 활용은 정보를 보편적 가치로 세속화하며·비밀이 없는 공개사회의 구성을 촉진한다. 정치적으로는 사회구성원의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촉진되고 사회적인 민주질서의 구축에 기능적으로 역할한다. 그러나 반대로 신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이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고 언론의 통로를 조작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은 집단의 통제에 위축되고 개인의 우월성보다는 집단의 기능이나 논리성이 인간의 개인적 속성보다 더 강조되는 사회로 나타난다.

3. 情報化時代의 社會科學의 발전경향

사회의 정보 및 기술지배의 기능 및 역기능은 탈산업사회에서의 사회과학적 연구경향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보사회의 시대적 속성이 사회과학의 발전방향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과학의 연구성향을 기술하고, 정보사회에서의 사회과학의 지향성, 정보화시대의 연구주제, 그리고 끝으로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과학적 연구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1) 社會科學의 科學的 연구 : 실증적 연구와 이해적 방법

사회과학은 인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사회과학은 19세기에 과학의 이름으로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제 분야에서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수용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은 관찰이 가능한 현상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찰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현상을 설명하는 경험론적 실증주의의 전통을 갖는다.

實證主義의 사회과학관은 자연과학적인 탐구가

인간사회의 행위영역에도 적용되며 사회현상의 제문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식체계로 수용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인간의 현실에서 발견되는 규칙적 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현실생활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을 내용으로 법칙을 정하고, 그를 토대로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을 형성한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따르면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대상도 자연과학의 사물과 별다른 성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연구방법에서도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검증가능한 법칙성과 이론적 구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적인 발견과 설명은 오직 경험적 관찰을 통해 발견되는 규칙성으로 표현한다. 실증주의자들은 경험적 인식 이외의 관점으로 인간의 행위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경험적 인식 이외의 주관적 의미의 세계를 인정하면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성은 달라진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을 독일에서는 정신과학 또는 문화과학으로,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인간과학으로 표현한다. 독일은 비자연적 현상으로 인간행위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사회현상의 인문학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통들은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인 인간의 행위와 사회현상은 인문과학적인 현상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의 개인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하는 이해적 방법을 주장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理解의 방법론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주관적 의미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학을 내세운다. 인간과 사회적 행위의 의미성을 밝히는 것이 사회과학의 주된 사명이라면 사회과학은 실증주의의 방법론처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일반적인 법칙성에 다른 이론성립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해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본질적으로 사회과학의 주제를 다

루기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인간의 경험에 따라 사회적 의미성이 내재화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형태의 직관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직관력은 경험을 다루는 행위절차로서 행위의 결과와 동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는 순수한 의미의 해석적 직관이다. 방법론적으로 직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해적 방법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정립하는 과학적 일반화의 문제도 계량적 방법보다는 참여관찰이나 역사비교 등의 질적인 조사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다.

2) 情報化사회에서의 사회과학의 指向性

현실적인 수준에서 공업사회에 비하여 정보사회는 정보 및 지식이 생산자원이 되고 이들을 토대로 精神的 가치를 양산하는 사회로서 금융·보험·부동산·후생·교육·연구 등 인간의 질적인 삶에 관계하는 산업유형이 주축을 이루는 산업유형을 갖춘다. 지식과 기술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과학적인 설명과 예측을 기대하며, 인간관에 있어서도 경제적이고 조직적인 인간관을 중시하기보다는 인간적 유대를 강조하며 사회적인 인간관을 지향한다.

정보화사회는 사회적 권위와 통제가 지배하던 닫힌 사회보다는 인간 및 사회발전을 이상으로 하는 열린사회로서 전개된다. 열린사회는 인간과 사회발전을 통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실현을 위하여 자유, 평등, 개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가치선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과학은 人間主義的 원칙을 추구하며 불행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실체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나 설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개념화하여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인간중심의 사회적 지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보사회의 사회과학은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실체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인간과 사회의 생존을 위한 지식, 정보, 기술의 개념을 추적하며 이론적 설명들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정보화사회의 지향이 보다 인간적인 열린사회로 향할 때

사회과학의 연구 및 발전방향은 실험이나 경험을 강조하는 실증적인 연구보다는 인간과 사회발전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해적 연구로 나아가게 된다.

3) 정보화사회의 사회과학적 研究主題

자연과학이 정태적 상태에 있는 물리적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면 사회과학은 동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과 사회의 집단현상에 대해서 연구한다. 인간이나 사회적 행위는 역사적 및 상황적 맥락에 따라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의 경우 연구대상을 조망하는 시각이나 관점에 따라 변화되는 可變性이 문제가 된다. 연구대상의 가변성은 사회과학의 연구성향을 자연주의의 법칙정립적인 성격보다는 환경에 따른 사건과학으로서 개성기술적인 성격부여가 더 강하게 한다. 특히 사회과학적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 법칙정립성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택하기보다는 그 사회의 시대적 상황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다. 즉, 객관화되어 있는 객체로서의 주제선정보다는 연구자의 主觀的 가치가 개재된 상태로서의 연구주제선정이 주된 흐름이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의 연구주제를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과학적 패러다임, 연구자의 가치,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연구자의 방법론, 연구의 범위 그리고 시간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과학적 패러다임은 연구자가 보는 세계관으로서 현상에 대한 지적인 성향과 설명적인 이론들을 의미한다.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지적인 패러다임은 설명체제로서 구조기능주의, 갈등론적 설명체계,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정보화사회가 선호하는 과학적 설명체계는 인간중심의 사회로서 국가나 집단의 상호작용보다는 인간간의 의미성을 이해하고 집속하는 미시적인 상징체계의 해석과 이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패러다임에 의한 미시적 이론들이 주요한 관점으로 부각될 듯싶다. 또한 연구자의 가치문제에서 기존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 논의된 연구

자의 가치배제 또는 개입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미 사회과학의 연구에는 가치배제보다는 가치전제의 입장에서 연구주제를 선택하고 연구과정에서의 가치배제로 간주관적 성격을 강조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의 가치배제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타력에 의지하는 복지사회보다는 자력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자력개생의 사회를 지향하고 또한 人間과 社會의 意味性을 강조하기 때문에 가치배제의 성향보다는 가치개제의 연구태도가 더 주장될 듯싶다.

정보화사회에서 사회적 반응을 크게 끌 수 있는 주제는 정보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구조, 사회적 공동체,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른 의사결정행위, 정보의 독점과 지배양식, 사회 및 인간의 유대관계,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의 방법 등 현재의 모든 사회과학분야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이 다 포함된다. 따라서 정보시대의 주제선택은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분야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며, 어느 특정한 사회과학분야가 독점적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성향은 연구의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연구자의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실증적인 양적 증명보다는 이해적인 질적 방법이 더 선호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개선은 인간 및 사회의 질적인 속성을 양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여 현상과 의미에 대한 개념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단순히 관계를 기술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因果的으로 규명하는 과학적 기법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인간과 사회적 행위를 인과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은 뛰어나게 발전한다.

끝으로 정보화사회의 사회과학적 연구주제의 선택과 관련하여 과학적 연구의 시간성문제는 연구주제를 정적인 상태인 수평적 연구와 통태적 역사적 시간성을 개재시키는 횡단적 연구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과학적 연구에 개재되는 시간성의 문제는 정보화사회라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적 연구의 시간성문제는 연구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4) 정보화시대의 사회과학적 研究過程

인간과 사회의 의미있는 행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의 연구가 과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방법이나 이해적 방법을 따르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수용해야 한다. 과학적 방법은 논리적 연역과 귀납, 그리고 실제로 증명하는 순환적 연계과정으로 연구주제에 대한 진술과 경험적 일반화물, 그리고 개념의 속성부여와 그들의 관계를 체계화시킨 합리적인 이론의 형성과정으로 통합된다.

과학적 지식을 구축하는 사회과학의 연구과정은 문제의 선정, 가설의 설정, 관찰 그리고 경험적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개념이나 설명이론이 수정, 보완 또는 확정된다. 그러므로 연구의 순환과정에서 각각의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을 정보와 기술중심의 시대적 속성에 따라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보화사회에서의 주제선택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자의 선호도, 사회적 설명체계, 그리고 사회적 관심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인간중심의 사회과학의 주제는 거시적인 현상보다는 미시적인 현상으로서의 문제제기가 지배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는 특정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개념은 산업사회의 질서보다는 정보사회의 脫産業主義의 속성을 반영하는 의미를 포함할 것이고, 정보기술중심의 인간과 사회적 현상에 따른 이론적 진술이 논리적 연역의 방법으로 가설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진술된 가설의 관계는 발달된 과학기술의 도구를 이용하여 조직화되어, 관찰할 수 있도록 개념이나 변수로 측정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된다. 가설적 진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된 자료는 수집되고 정보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처리된 자료는 사회과학적인 설명체계에 따라 논리적 귀납과정을 거쳐 경험적인 일반화의 증명과정을 거친다. 경험적으로 일반화된 사실은 기

존의 개념과 이론을 수정·보완하고 정보화사회의 時代的 맥락에 맞는 文化的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전환되거나 수정된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과학의 개념과 이론은 정보사회의 시대적 속성을 반영하는 인간과 사회의 상징적 의미가 반영되어 사회적 맥락에 따른 해석과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과학적 연구의 연역과 귀납, 도구화의 측정 등의 방법론적 측면은 산업사회의 사회과학 주제를 다룰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자료분석과 처리의 효율성은 뛰어나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개념과 이론의 형성은 정보사회의 의미성에 따라 해석되지만, 과학지식의 생산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맺음말

사회가 변하여 정보와 기술이 주된 사회적 생산양식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자원으로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가치를 주요재화로 생산하는 사회로서 서비스 및 사회복지 위주의 인간중심의 사회를 지향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감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 및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논리를 기초로 하며 미래지향적인 예측사회를 구현한다. 사회적 이념의 대립적 성격은 약화되고 조화·화해가 주장되는 공동체적인 사회를 구성하며 인간 상호간의 협동이 강조된다. 자아실현 또는 삶의 정당화로서 노동보다는 문화를 지향한다. 주요한 사회적인 경제기능은 정보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기능이 중심이 되어 경제단위가 상호의존적인 세계경제의 성격을 갖는다. 정보사회의 정치

형태는 참여민주주의이고, 사회적 지향점은 타인의존의 복지사회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 기반을 둔 자생적인 복지사회로 변모한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정보와 기술이 자원화됨으로써 정보자원의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여 정보폭력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정보 자체가 제대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정보량이 무한해지고 정보관리체계의 발달로 정보공해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대면적 인간관계가 기계와 인간의 의사소통관계로 대체되며, 이러한 현상은 정보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한다.

정보화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社會的 特性은 정보사회에서 야기되는 인간과 사회의 소외 및 비민주화 현상을 인간중심의 사회발전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정보사회의 사회과학의 연구성향은 사회과학적 연구대상에 따른 거의 모든 사회과학적 주제에 파급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주제에 대한 연구방법은 인간중심의 이해적 방법에 더 치우치고 실증주의적인 연구전통은 사회과학의 방법론적 측면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의 사회과학적인 개념과 이론체계는 시대와 사회적 의미성을 반영하며 새로운 해석과 가설적 진술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연구주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은 실증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성향이다.

전체적으로 정보화시대의 사회과학의 발전방향은 科學精神의 속성상 정보화이전의 사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정보와 기술 중심의 사회가 야기하는 사회문제 때문에 정보사회에서의 과학적 지향은 人間中心의 사회구성, 자유,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구축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